권두언

구약논집 제5집을 발간하며

김 진 섭
한국복음주의구약학회 회장
백석대학교 대학원신학부총장 겸 기독신학대학원장

오늘날 한국교회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에 있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국교회에 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난의 공격적 자세를 취한지 오래다. 특히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아래 한국 사회는 기독교를 보편화 시키려고 할뿐 아니라, 기독교의 독특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신구약 66권 성경의 계시와 영감성을 제거하려고 한다. 게다가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과 사이비들은 기독교인들을 미혹하여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의 물타기나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움직임보다 더 큰 위험이 기독교 내부 안에 자리하여 그 영역을 넓혀가는 실정이다. 그 위험은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를 부정하는 신학적 입장들과, 무질서한 신비주의의 움직임과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비 복음적인 메시지 선포이다. 이 모든 위험의 근저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적용할 것인가란 성경해석학의 해법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다가온다.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는 올바른 성경 해석을 교회에 제공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를 학자와 교수로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신학 하는 목적 역시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학문적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구결과들이 교회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자료에 불과하지 않는가? 구약과 목회, 즉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구약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한 견고한 초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막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형성된 학자들의 모임이 한국복음의 구약신학회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한 성령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서 서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해야 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표기될 수 있도록 성경기록자를 감동시키며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학문적 연구와 그 결과물에도 성령님의 인도가 있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구약논집 제5권에 귀한 논문을 게재하신 여러 동역 교수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논문을 대하는 모든 회원들과 독자들과 함께 성령님의 교제와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한다.